

주요내용

▶ 태국 식품산업 전망 발표

- 최근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 and Board of Trade of Thailand), 태국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및 국립식품연구원(National Food Institute),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2018년 태국 식품 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 국립식품연구원(NFI)이 식품정보센터(Food Intelligence Center)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태국 식품산업은 전년대비 약 3% 성장해 물량 3,250만 톤 및 1조 바트(baht)(약 32,020백만 달러)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당초 목표치였던 성장률 4.5~5.3%, 물량 3,300만 톤 및 1.03조 바트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새우, 통조림 참치, 카사바(탄수화물이 풍부한 서류의 한 종류), 과일주스와 같은 제품들이 태국 환율 강제로 수출액 목표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CLMV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태국 전체 수출의 16.6%를 차지해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아세안 국가,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 2017년도 태국 식품 수입국가 순위 및 점유율 |

순위	수출국가/지역	점유율(%)
1	CLMV국가	16.6
2	일본	13.5
3	ASEAN-5	11.6
4	미국	10.6
5	아프리카	9.3
6	중국	9.0
7	유럽	6.0
8	중동	4.2
9	오세아니아	3.3
10	영국	3.0

* 출처: Food Focus Thailand 2018년 2월호 / NFI

▶ 2017년 태국의 수출 성장품목은?

- 국립식품연구원의 대표 및 원장인 Yongvut Saovapruk은 “현재 많은 핵심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품목들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코코넛을 제외한 신선과일의 수출은 지난 5년간 평균 23% 성장하여 현재 723억4천만 바트(약 2,316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에너지음료와 제과류도 각각 10%, 11% 성장세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 태국의 유망 수출품목 대부분은 태국과 인접해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태국 상공 회의소, 산업연맹, 국립식품연구원 3개 기관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 중 잠재성이 보이는 제품을 중심으로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7 태국 수출 최대 성장 식품 |

품목	금액(백만 달러)	성장률(%)
신선과일(코코넛 제외)	2,316.4	23
에너지음료/드링크	721.1	10
제과	433.3	11
유제품	335.2	6
식품 보충제(비타민 제외)	102.5	6
아이스크림	67.9	5

* 출처: Food Focus Thailand 2018년 2월호 / NFI

▶ 2018년 태국의 수출 성장 유망품목

- 2018년 태국 식품산업은 전년대비 7% 확대 및 수출액 1.07조 바트(약 34,262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최대 수출품목으로는 쌀, 닭고기, 설탕, 새우, 참치 통조림, 올해 수출 성장 유망품목으로는 코코넛, 레디 밀, 새우, 설탕, 조미료, 닭고기, 과일주스가 선정되었다.

| 2018 태국의 수출 성장 유망품목 |

품목	성장률(%)
코코넛	17.6
레디 밀(Ready-meal,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식사용 식품)	10.0
새우	9.3
설탕	6.8
조미료	6.8
닭고기	6.6
과일주스	6.6

* 출처: Food Focus Thailand 2018년 2월호 / NFI

* 참고자료

- Food Focus Thailand(2018년 2월호), 「Food Industry outlook 2018」

시사점

- 태국의 주요 교역국의 꾸준한 경제 회복과 2017/18년에 강수량 증가로 인한 수확량 확대 등이 2018년 태국의 식품 산업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최근 태국의 대형식품기업의 경우, 인도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동남아 최대 식품 수출국가인 태국의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곧 다른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출농식품과 경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특히 냉동식품 및 즉석 편의식품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점유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 태국 식품산업이 지닌 지리적 근접성,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원가(원재료, 인건비 등) 등의 장점을 감안할 때, 태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출품목(냉동식품, 에너지 드링크, 통조림 등)과는 뚜렷하게 차별화 되는 수출품목을 선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